

도봉창

▶ 박송, 김수한, 김유현, 김준혁(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리포트

우리 동네는 왜
마계 인천이라 불리게 된걸까?

영 상

팩트체크 시리즈 |
'마계 인천'은 진실인가?



각오한마디!

도봉창은 창의 도전 봉사의 약자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 생각하여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사람들이 되자는
 의미에서 팀명을 제작하게 되었다.
 팩트체크 활동 통해 진행하며
 많은 자료 조사와 실험 등을 진행하여
 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다 할 근거 없이 믿고 있던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또한 그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팩트체크 리포트

우리 동네는 왜 마계 인천이라 불리게 된걸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최근 뉴스 기사에서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인천이 왜 마계 인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SNS에서 인천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콘텐츠들을 시청하였을 때, 때문에 이러한 '마계 인천'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극단적이고 작위적으로 설정된 인천의 편견과 인식을 고치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마계인천이라고 불리는 원인 및 편견 체크

마계인천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유 탐색과 최근 발생한 인식이 편견인지에 대한 팩트체크

2. 사람들의 인천에 대한 인식

통계청으로부터 알아낸 사람들의 자료(사회 안전 인식 수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인천이 안전한지에 대한 통계 등)을 분석하고 해석

3. 마계인천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판단

책과 논문을 통해 마계인천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탐색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상이나 기사 등을 찾게 되면서,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도 앞에 '인천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마계인천이라는 이미지를 더 굳건히 구축시키고, 이러한 마계인천의 이미지를 산업적으로 콘텐츠화 시키고, 악의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써 좋게 생각되지 않았다.

체크해보기

찾아보기

02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해당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관한 부분과 도시 브랜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 주제와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시청과 인천경찰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무기획과 기획예산계 박영준 경사에게 물어보았다.

🗣️ 인천 시청 인터뷰

인천이 '마계인천'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여러 복지에 힘을 쏟고 특히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마계인천'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도록 하고있다고 했다.

④ 인천경찰청 박영준 경사 인터뷰

인천이 타 지역 대비 인해 범죄율 면에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인천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한 인식 때문일 수 있으나 그것은 인천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으로써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미시적인 접근 보다는 인천이 안전함을 제가 보내드리는 통계와 같이 증명하고, 어디서부터 그러한 인식이 생겨난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찾아보기

물어보기

03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 첫 번째 실험

다양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특수한 사건 및 사고를 담은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인천이라고만 지명하므로써, 인천에서 특수한 사건,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일반화가 되어진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프라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프라이밍 효과가 진짜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를 띠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2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실험 가설

군, 구 등의 행정구역을 사용한 뉴스 기사보다 지역(시)만을 지명하는 뉴스 기사가 프라이밍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것이다.

➡ 첫 번째 실험 과정

1. 인천에 거주 중인 주민 87명(설문 대상)에게 google form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 종류(A 지역, B 지역)의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각각 5개씩 보여준다.
A 지역: 헤드라인 속 A 지역(시)의 행정구역(군, 구 등)이 구체적으로 지명된 뉴스 기사

B 지역: 헤드라인 속 B 지역(시)이라고만 지명되어 있는 뉴스 기사

2. 이후 다음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 ① 두 지역 중 어떤 지역이 더 범죄 발생률이 높을 것 같나요?
- ② 두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 살아야 한다면, 어떤 지역에 더 살고 싶나요?

3. 결과를 분석한 후 비교한다.



➡ 두 번째 실험

인천 시청에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언론에게 마계 인천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편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었다. 이에 대해 언론사가 그저 '마계 인천' 명칭 사용을 자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편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을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진행해 보게 되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대구, 부산으로 도시의 기사 제목에 도시명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구명만 사용하는 비율을 BigKinds 사이트를 활용하여 알아본다. (뉴스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개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BigKinds 사이트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 가설

타 지역과 인천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날 것이다.

➡ 두 번째 실험 과정

1. BigKinds 사이트에 아래 표와 같이 광역시의 이름이 있는 기사와 없는 기사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같이 조건을 설정한다.

	기간	사건 사고 분류	검색어 처리	검색어 범위	단어중1개포함	다음 단어 제외
구명만 포함	전 체	성범죄,범죄 일반	형태소 분석	제목	(광역시에 모든 구명)	(광역시 이름)
모두	전 체	성범죄,범죄 일반	형태소 분석	제목	(광역시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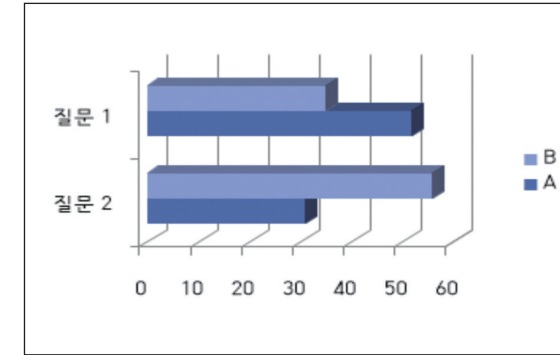
2. 그후 조건에 맞춰 BigKinds 사이트에 입력하여 결과를 살펴본다.

The screenshot shows the BigKinds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뉴스분석', '기획분석', '뉴스보기', '빅카인즈 활용', and '빅카인즈 소개'. Below these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기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and a search button. The main search area has several filters: '기간' (set to '언론사'), '통합 분류' (set to '사건사고 분류'), and '상세검색' (set to '+'). Under '상세검색', there are sub-sections for '검색유형' (set to '뉴스'), '검색어 처리' (set to '형태소 분석'), '검색어 범위' (set to '제목'), and '기교자명'. There are also fields for '단어중 1개 이상 포함' (set to '중구,용진군,연수구,서구,부평구,미수동구,동구,남동구,계양구,강화군'), '다음단어 모두 포함' (set to '단어 입력'),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set to '검색어 처리를 바이그램으로 선택하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d '다음단어 제외' (set to '인천').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초기화' and '검색'.

3. 검색후 나온 인터넷 뉴스 결과 개수를 인천, 서울, 부산, 대구에 대해서 기록한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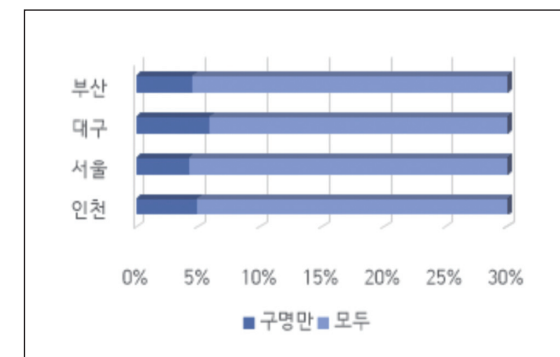
<첫 번째 실험 결과>



<chart> 첫 번째 실험 중 설문 조사 결과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실험에서 실행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첫 번째 질문에선 헤드라인 속 행정구역(군, 구 등)이 구체적으로 지명된 뉴스 기사, 즉 A 지역을 선택한 사람은 87명 중 31명이었다. 반대로 헤드라인 속 지역(시)이라고만 지명되어 있는 뉴스 기사, 즉 B 지역을 선택한 사람은 87명 중 56명이었다. 이를 통해, A 지역보다 B 지역이 범죄 발생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문 2에서도 A지역은 52명, B지역은 35명으로 A지역에서 더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라이밍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 결과>



<chart> 두 번째 실험 중 Bigkinds 분석 결과

이 그래프는 두 번째 실험을 통해 구한 결과이다. 위 그래프와 같이 인천, 서울, 대구, 부산 모두 구명만 사용한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뉴스의 비율이 약 4~6%이었다. 따라서 구명만 사용된 뉴스 기사가 다른 도시처럼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인천시청에서 언론사에 제시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고 이는 프라이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프라이밍 효과임을 인지하고 더 신경쓰는 것이 아닐까하는 예측이다.

➔ 반론

1. 실제 인천 생활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실제 인천 변화가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계인천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일을 하며 직접 여러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고,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인천사람들은 생활하며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마계인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이 마계인천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마계인천을 먼저 언급하며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람또한 있다.

2. 마계인천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마계인천의 시초 중 하나인 인천 문학 경기장의 번개 치는 장면으로 마계인천이라는 말이 지역 비하 발언보다 인터넷 밈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그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제목으로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천의 치킨집 중 하나인 '마계통닭'등 마계인천으로 마케팅 효과를 보며 나쁜 의미만이 아닌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재반박

1. 마계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면,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로 과장되어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한 인식 왜곡은 인천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2. 하지만 마계인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쁜 의도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그저 마케팅 효과만이 아닌 인천 사람의 인성과 경찰의 근무 태만 등의 편견이 생겨났다. 몇몇 사람들은 그저 장난으로 '마계인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특정 사건 때문에 잘못 심어진 인식이 계속해서 인천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작성하기

처음 위 주제에 대하여 '마계 인천'이라고 불리는 이유로 크게 떠오르는 여러 인식들을 찾아보았을 때 먼저, 사건, 사고가 많고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확인해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었다. 인천경찰청에 문의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지역안전지수 등급또한 20년부터 계속하여 발전하여 22년 기준 범죄 안전지수, 교통사고 안전지수, 화재 안전지수 모두 2등급으로 매우 상의권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계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발생할 쯤이었던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하였을 때, 범죄 발생 건수가 89,911건에서 76,582건으로 약 13,000건 정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계 인천'이라는 용어가 발생한 당시의 인천은 현재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인식이 실제와 꽤나 흡사하였으나, 이후 많은 개발이 이뤄지고 현재에 존재하는 인식들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진행하였던 '체감안전도' 조사를 바탕으로 '마계 인천'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잘못된 인식, 즉 편견이 유지된 것이라 판단된다.

인천 경찰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론 주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 또한 83.4%로 국내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안심 비상벨이 의무사항 되기 전부터, 2014년부터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 및 사고우려 지역의 공원, 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안심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사건, 사고 예방률을 높이는 데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폭력적이고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과거 마계 인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작이 되었던 사례 중 하나인 2000년 초반 만화 짱에서 인천의 고등학교 설정과 이를 일진물 주제로 큰 히트를 쳤고, 당시에 '도봉산'이라는 질 나쁜 학교(항도실업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로 인천에 양아치가 많고,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어 인천 사람 전체로 일반화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도봉산으로 불리던 세 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되었고, 또한 부평의 지하상가도 과거 양아치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하다라는 인식과 다르게 현재론 부평의 자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수도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안전을 위한 보안 강화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상당히 다수의 사람들이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마계인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컨텐츠화하는, 일명 프라이밍(점화) 효과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 바이럴 마케팅과 같이 이용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굳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 대도시를 희화화하면서 생성된 이 마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 인천시청은 이러한 '마계인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사나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러한 명칭의 언급을 자제해달라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위 용어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면 바로 인천 시민 스스로 소속감과 지역 정체성을 갖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지역 정체성이 부재하여, 마계 인천의 누명을 극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오명을 벗기기 위해 인천이 '마계 인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미디어 콘텐츠

팩트체크 시리즈 | '마계 인천'은 진실인가?

콘텐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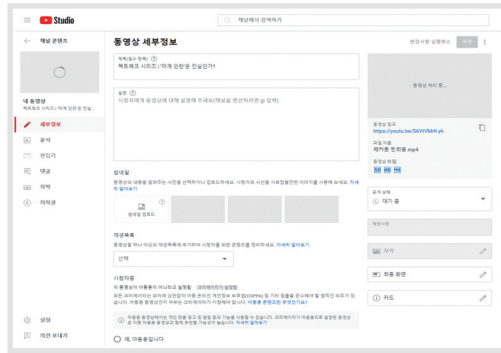
➔ 기획의도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인천사람들에게 '마계 인천'이라며 놀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마계 인천'이라 불리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마계 인천'사람이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 인천은 '마계 인천'이라 불리기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 또한 해당 영상을 기획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다양한 지역 사람과 인천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인천이 '마계 인천'이 아님을 깨닫고 해당 이미지를 지우는 것에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제작하게 되었다.

➔ 상세설명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길지 않은 영상 길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박자 그리고 흥미 위주의 영상을 시리즈 1과 2에 제작하였으며 영상의 진중함과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 시리즈 3에 보다 느린 박자와 정보 위주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시리즈 1에선 마계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3 인물 중 한 인물이 자신을 마계 인천 사람이라 놀리는 두 사람을 한탄하는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시리즈 2에선 왜 마계 인천이 시작되었고 무엇에 의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는지를 과거 실제 존재했던 사실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3은 인천 경찰청과 인천 시청에게 자문한 후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천은 현재 마계 인천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을 바꾸기 위한 시청의 노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첫 영상의 기획과 같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기 위해 유튜브 계정을 만든 후 업로드하며 해당 영상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은 마계 인천이 아니라 결론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이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학교 정보 시간에 선생님께 부탁하여 실제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리하여 영상을 보는 학우들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재미있게 영상을 보며 웃었던 덕분에 [시리즈 3]에 나오는 영상을 더욱 집중하며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보아 영상의 기획이 잘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 학생들의 반응을 여쭙본 결과 ‘정보 시간에 배웠던 가짜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와 우리 지역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 신선하고 새로웠다’, ‘덕분에 지역 프레임을 무심코 같이 소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셨으며 이를 통해 해당 영상은 향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영상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참여소감

박승 : 해당 문제가 체커톤을 진행하면서도 유명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꾸준히 올라 오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또한 많은 예능 영상 중 인천이라는 지역이 ‘무서운 동네’로 비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고 이에 대해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가 인천의 이미지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수한 : 팩트체커로써 우리 동네에 대한 다양한 자료조사를 해보면서 여러 인식을 접해보게 되었다. 여태까지 인천 토박이로 살아온 나로서 우리 동네는 나름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 몇 소셜 미디어에선 우리 동네 인천에 대한 간단한 장난을 넘어 여러 편견을 씌우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면서 몇몇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생겼었다. 이렇게 프로젝트는 마무리하지만 우리 팀의 입장 그대로 나또한 인천 시민으로써 인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다.

김유현 : 체커톤에 참여하면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실과 오해, 루머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기회였고,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삶에 깊숙히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진실을 전파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있었습니다.

김준혁 : 체커톤을 진행하면서 빅카인즈처럼 새로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알아가게 되었다. 이로인해 다른 프로젝트나 연구를 진행할때 이 경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결과물을 제작한것이 뿌듯하고 유익했다. 또한 체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인천의 별명인 마계인천이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증명해 내었다는 성취감이 들었다.